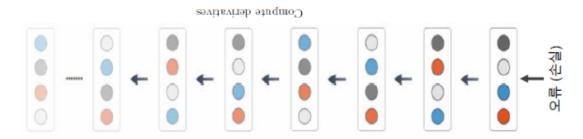
# 딥러닝

- 다층 퍼셉트론에 은닉층을 여러 개 추가하면 깊은 신경망이 됨
- 딥러닝은 깊은 신경망을 학습시킴
- 딥러닝은 새로운 응용을 창출하고 인공지능 제품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
  - ㅇ 현대 기계 학습을 주도

## 딥러닝의 등장

- 배경
  - ㅇ 1980년대에 이미 깊은 신경망 아이디어 등장
  - ㅇ 하지만 실현 불가능(당시, 깊은 신경망은 학습이 안 됨)
    - 그레디언트 소멸 문제
    - 작은 훈련 집합
    - 과다한 연산과 시간 소요 (값비싼 슈퍼컴퓨터)
  - ㅇ 일부 연구자들은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연구
    - 학습률에 따른 성능 변화 양상
    - 모멘텀의 영향
    - 은닉 노드 수에 따른 성능 변화
    - 데이터 전처리의 영향
    - 활성함수의 영향
    - 규제 기법의 영향
- 그레디언트 소멸 문제



## 딥러닝의 기술 혁신 요인

- 요인
  - **컨볼루션 신경망**(CNN)이 딥러닝의 가능성을 엶
    - 매개변수의 공유를 통해서 효율적인 학습 접근 제공
  - o 계산은 단순한데 성능은 더 **좋은 활성함수**
  - o 과잉적합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**다양한 규제기법**
  - o 층별 **예비학습** 기법 개발
  - o 값싼 GPGPU의 등장
  - o 인터넷 덕분으로 **학습 데이터 양과 질의 향상**

### 특징 학습의 부각

• 기계학습의 패러다임의 변화

- ㅇ 고전적인 다층 퍼셉트론
  - 은닉층은 **특징 추출기**
  - 얕은 구조(제한적 특징 추출)이므로 가공하지 않은 획득한 원래 패턴을 그대로 입력하면 **낮은 성능**
  - 따라서 사람이 **수작업** 특징을 선택하거나 추출하여 신경망에 입력함
- ㅇ 현대 기계학습(딥러닝)
  - 데이터로부터 **특징 추출**하도록 학습 <- **특징 학습**
  - 전체 특징을 신경망의 입력 <- 종단간 학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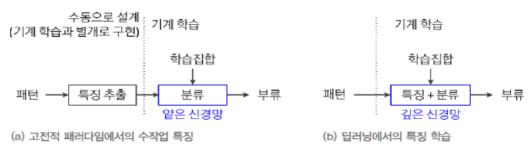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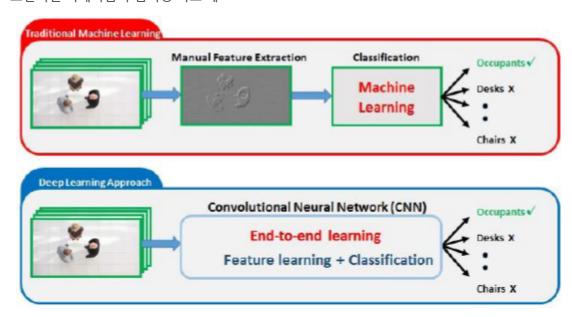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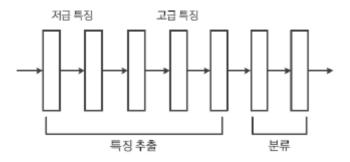


그림 4-1 기계 학습의 패러다임 변화

• 고전적인 기계학습과 딥러닝 비교 예



- 특징 학습
  - **낮은 단계 은닉층**은 선이나 모서리와 같은 **간단한(저급) 특징** 추출
  - **높은 단계 은닉층**은 추상적인 형태의 **복잡한(고급) 특징**을 추출
  - ㅇ 특징 학습이 강력해짐에 따라
    - 기존 응용에서 획기적인 성능 향상
      - 영상 인식, 음성 인식, 언어 번역 등
    - 새로운 응용 창출
      - 분류나 회귀뿐 아니라 생성 모델이나 화소 수준의 영상 분할
      - CNN과 LSTM의 협력 모델 등이 가능해짐



## 깊은 다층 퍼셉트론

### 구조와 동작

- 깊은 다층 퍼셉트론의 구조
  - 입력층(d+1개의 노드)과 출력층(c개의 노드)
  - L-1개의 **은닉층** (입력층은 0번째 은닉층, 출력층은 L번째 은닉층으로 간주)
    - I번째 은닉층의 노드 수를 *n*<sub>1</sub>로 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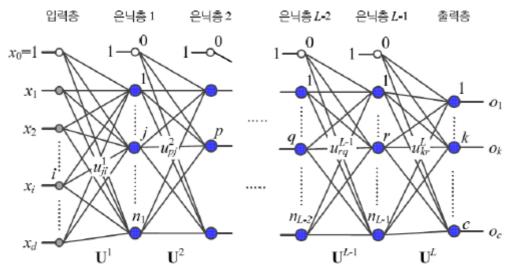


그림 4-3 깊은 MLP(DMLP)의 구조

- DMLP의 가중치 행렬
  - ㅇ  $u^l_{ji}$ 은 I-1번째 층의 i번째 노드와 I번째 층의 j번째 노드를 연결하는 가중치
  - $\circ$  I-1번째 층과 I번째 층을 연결하는 가중치는 총  $(n_{l-1}+1)n_l$ 개

가중치 행렬: 
$$\mathbf{U}^l = \begin{pmatrix} u^l_{10} & u^l_{11} & \cdots & u^l_{1n_{l-1}} \\ u^l_{20} & u^l_{21} & \cdots & u^l_{2n_{l-1}} \\ \vdots & \vdots & \ddots & \vdots \\ u^l_{n_l0} & u^l_{n_l1} & \cdots & u^l_{n_ln_{l-1}} \end{pmatrix}$$
,  $l=1,2,\cdots,L$ 

- DMLP의 **동작** 
  - MLP의 동작을 나타내는 식 (3.12)를 보다 많은 단계로 확장한 것

$$\mathbf{o} = \mathbf{f}(\mathbf{x}) = \mathbf{f}_L \left( \cdots \mathbf{f}_2 \left( \mathbf{f}_1(\mathbf{x}) \right) \right)$$

- 동작을 구체적으로 쓰면
  - ㅇ 입력층의 특징 벡터를 내부 표현으로 바꾸어 쓰면

$$\mathbf{z}^0 = (z_0, z_1, z_2, \cdots, z_{n_0})^{\mathrm{T}} = (1, x_1, x_2, \cdots, x_d)^{\mathrm{T}}$$

○ I번째 층의 i번째 노드가 수행하는 연산

$$\begin{split} z_j^l &= \tau_l \big( s_j^l \big) \\ & \circ | \mathbb{H} | s_j^l &= \mathbf{u}_j^l \mathbf{z}^{l-1} \circ | \mathbb{I}, \\ \mathbf{z}^{l-1} &= (1, z_1^{l-1}, z_2^{l-1}, \cdots, z_{n_{l-1}}^{l-1})^\mathsf{T}, \ \mathbf{u}_j^l &= (u_{j0}^l, u_{j1}^l \cdots, u_{jn_{l-1}}^l) \end{split}$$

○ 행렬 표기를 이용하여 **|번째 층의 연산** 전체를 쓰면

$$l$$
번째 층의 연산:  $\mathbf{z}^l = \boldsymbol{\tau}_l(\mathbf{U}^l \mathbf{z}^{l-1}), \ 1 \leq l \leq L$ 

### 학습

- **DMLP 학습**은 3장의 **MLP 학습**과 **유사** 
  - o DMLP는 그레디언트 계산과 가중치 갱신을 더 많은 단계에 걸쳐 수행
-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
  - o L번째 층(출력층)의 그레디언트 계산

$$\delta_k^L = \tau_L'(s_k^L)(y_k - o_k), \qquad 1 \le k \le c$$

$$\frac{\partial J}{\partial u_{kr}^L} = -\delta_k^L z_r^{L-1}, \qquad 0 \le r \le n_{L-1}, \ 1 \le k \le c$$

o I+1번째 층의 정보를 이용하여 I번째 층의 그레디언트 계산

$$\delta_j^l = \tau_l'(s_j^l) \sum_{p=1}^{n_{l+1}} \delta_p^{l+1} u_{pj}^{l+1}, \qquad 1 \le j \le n_l$$

$$\frac{\partial J}{\partial u^l_{ji}} = -\delta^l_j z^{l-1}_i, \qquad 0 \le i \le n_{l-1}, 1 \le j \le n_l$$

#### 알고리즘 4-1 DMLP를 위한 미니배치 스토캐스틱 경사 하강법

입력: 훈련집합  $\mathbb{X}$ 와  $\mathbb{Y}$ , 학습률  $\rho$ , 미니배치 크기 t

```
출력: 가중치 행렬 \mathbf{U}^{l}, l = 1, 2, \dots, L
1 \mathbf{U}^{l}, l = 1, 2, \cdots, L을 초기화한다.
2
    repeat
        \mathbb{X}와 \mathbb{Y}에서 t개의 샘플을 무작위로 뽑아 미니배치 \mathbb{X}'와 \mathbb{Y}'를 만든다.
3
        for (l=1 \text{ to } l) \Delta \mathbf{U}^{l} = \mathbf{0}
4
        for (X'의 샘플 각각에 대해)
5
6
              현재 처리하는 샘플을 \mathbf{x} = (x_0, x_1, x_2, \dots, x_d)^T, \mathbf{y} = (y_1, y_2, \dots, y_c)^T라 표기한다.
             x_0, z_0^1, z_0^2, \cdots, z_0^1을 1로 설정한다.
7
                 // 전방 계산
             x를 z<sup>0</sup>에 대입한다. // 식(4,3)
8
             for (I=1 \text{ to } L) // 왼쪽 층에서 오른쪽 층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계산
9
                for (j=1 \text{ to } n_i) // 각노드에 대해
10
                    s_i^l = \mathbf{u}_i^l \mathbf{z}^{l-1} // 4 (4.4)
11
                    z_i^l = \tau_l(s_i^l) // 4 (4.4)
12
                 // 오류 역전파의 단계 1: 그레이디언트 계산
13
             for (k=1 \text{ to } c) \delta_k^L = \tau_L'(s_k^L)(y_k - o_k) // 4(4.6)
14
             for (k=1 \text{ to } c) for (r=0 \text{ to } n_{l-1}) \Delta u_{kr}^L = \Delta u_{kr}^L + (-\delta_k^L z_r^{L-1})
15
             for (I=L-1 to 1) // 오른쪽 층에서 왼쪽 층으로 진행하면서 오류 역전파
16
                for (j=1 \text{ to } n_l) \delta_l^l = \tau_l'(s_l^l) \sum_{p=1}^{n_{l+1}} \delta_p^{l+1} u_{pj}^{l+1} // \stackrel{\triangle}{\hookrightarrow} (4.8)
17
                for (j=1 \text{ to } n_i) for (i=0 \text{ to } n_{l-1}) \Delta u_{ti}^l = \Delta u_{ti}^l + (-\delta_i^l z_i^{l-1})
18
            // 오류 역전파의 단계 2: 가중치 갱신
        for (l=1 \text{ to } 1)
19
```

• 역사적 고찰

20

ㅇ 학습 알고리즘의 주요 개선

21 until (멈춤 조건)

퍼셉트론 ── 다층 퍼셉트론 ── 깊은 다층 퍼셉트론

활성함수: 계단함수 시그모이드함수 ReLU와 변형들 목적함수: 평균제곱 오차 평균제곱 오차 교차 엔트로피 또는 로그우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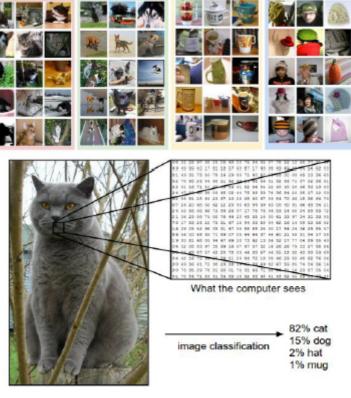
for  $(j=1 \text{ to } n_I)$  for  $(i=0 \text{ to } n_{I\dashv})$   $u_{ii}^l = u_{ii}^l - \rho\left(\frac{1}{4}\right)\Delta u_{ii}^l$ 

그림 4-4 다층 퍼셉트론의 역사적 발전 양상

- o CNN의 부상
  - MNIST 인식 경쟁
  - ILSVRC 영상 인식 경쟁: CNN이 DMLP보다 확연히 우월

## 컨볼루션 신경망

• **영상 인식**의 예



mug

- 오늘날 영상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 됨
  - ㅇ 분류, 검색, 검출, 분할
- DMLP와 CNN의 비교
  - o DMLP
    - 완전 연결 구조로 높은 복잡도

cat

dog

- 학습이 매우 느리고 과잉적합 우려
- o CNN
  - **컨볼루션 연산**을 이용한 **부분연결(희소 연결)** 구조로 **복잡도 크게 낮춤**
  - **컨볼루션 연산**은 좋은 **특징 추출**
- CNN
  - **격자 구조**(영상, 음성 등)를 갖는 **데이터**에 적합
  - o **수용장**은 인간시각과 유사
  - ㅇ 가변 크기의 입력 처리 가능
- CNN의 완전 연결 신경망과 차별
  - ㅇ 각 층의 입출력의 특징형상 유지
  - 영상의 **공간정보**를 유지하면서 공간적으로 **인접한 정보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인식**
  - 학습에 의해 결정된 **복수의 커널들(혹은 필터들)에 대응되는 특징들을 추출하는 층**을 가짐
  - o 추출된 영상의 **특징을 요약하고 강화**하는 층을 가짐
  - o 각 커널은 **파라미터를 공유함**으로써 완전 연결 신경망 대비 **학습 파라미터가 매우 적음**

## 컨볼루션층(CONV)

- 컨볼루션 연산
  - o 컨볼루션은 해당하는 요소끼리 곱하고 결과를 모두 더하는 **선형 연산** (**합성곱**)
  - 식 (4.10)과 식 (4.11)에서 u는 커널(혹은 필터), z는 입력, s는 출력 (특징 맵)
    - 영상에서 **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용도**로 사용됨(**공간 필터**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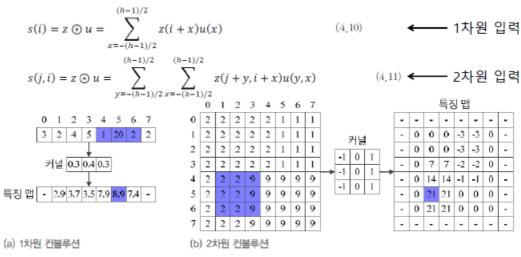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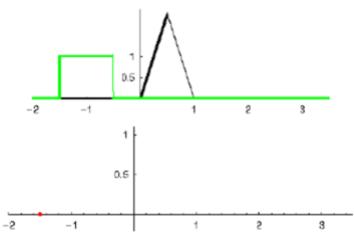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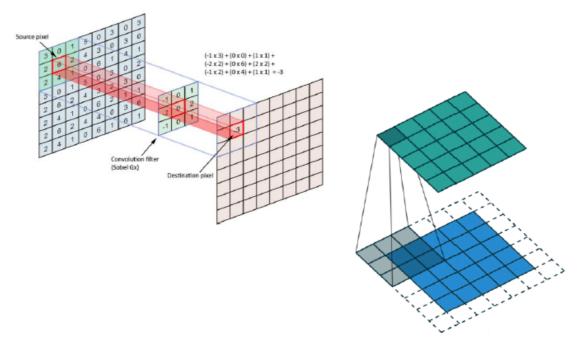
그림 4-6 컨볼루션 연산

• 1차원 컨볼루션 연산의 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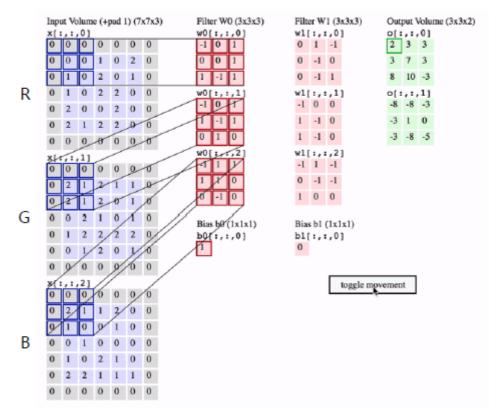
#### Convolution of a triangle with a blook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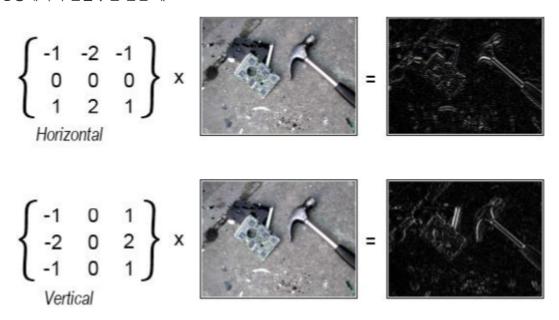
• 2차원 컨볼루션 연산의 예



• 3차원(혹은 채널) 컨볼루션 연산의 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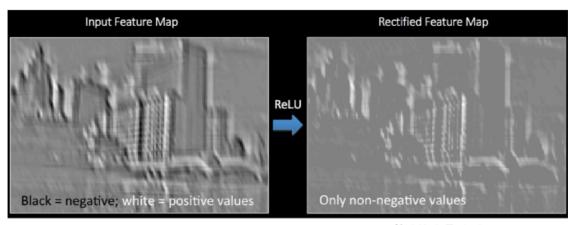
• 영상에서의 컨볼루션 연산 예



• 영상에서의 다수의 컨볼루션 연산 예



- 커널의 값에 따라 커널이 추출하는 특징이 달라짐
- 영상에서의 ReLU(활성함수) 연산의 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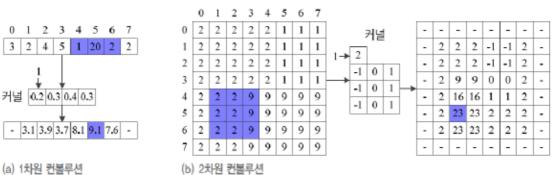
활성화된 특징 맵

- 덧대기(Padding)
  - o 가장자리에서 영상의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 방지(각 층의 입출력의 특징 **형상 유지**)



그림 4-7 멋대기(회색 노드가 멋댄 노드)

• 바이어스 추가



(a) 1차원 컨볼루션

그림 4-8 바이어스

- 가중치 공유 혹은 묶인 가중치
  - 모든 **노드가 동일한 커널**을 사용
    - 가중치를 공유하므로 매개변수는 3개에 불과
  - 모델의 복잡도가 크게 낮아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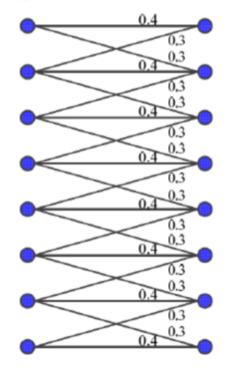


그림 4-9 CNN의 가중치 공유

#### • 다중 특징 맵 추출

○ 커널의 값에 따라 커널이 추출하는 특징이 달라짐

$$\begin{pmatrix} -1 & 0 & 1 \\ -1 & 0 & 1 \\ -1 & 0 & 1 \end{pmatrix}$$
: 수직방향,  $\begin{pmatrix} -1 & -1 & -1 \\ 0 & 0 & 0 \\ 1 & 1 & 1 \end{pmatrix}$ : 수평방향 선 혹은 모서리 추출

- ㅇ 따라서 하나의 커널만 사용하면 너무 빈약한 특징이 추출됨
- o 3개 커널을 사용하여 3개 특징 맵을 추출하는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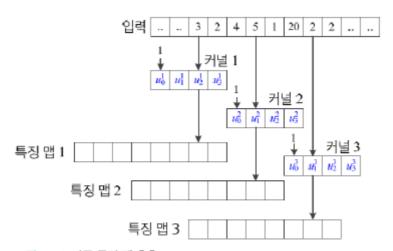


그림 4-10 다중 특징 맵 추출

- 실제로는 수십~수백 개의 커널을 사용
- 특징 학습
  - o 커널을 사람이 설계하지 않고, **학습으로 찾음** 
    - $u_i^k$ 는 k번째 커널의 i번째 매개변수

- 2차원 영상이 7\*7 커널을 64개 사용한다면 학습은 (7\*7 +1)\*64 = 3200개의 매개변수 필요
- o DMLP와 마찬가지로 **오류 역전파로 커널을 학습**
- 컨볼루션 연산에 따른 CNN의 특성
  - o 이동에 동변 (신호가 이동하면 이동 정보가 그대로 특징 맵에 반영)
    - 영상 인식에서 물체 이동이나 음성 인식에서 발음 지연에 효과적으로 대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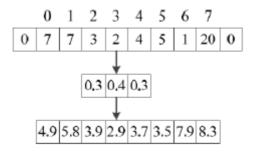


그림 4-11 CNN의 이동에 동변한 특성

- ㅇ 병렬분산 구조
  - 각 노드는 독립적으로 계산 가능하므로 병렬 구조
  - 노드는 깊은 층을 거치면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분산 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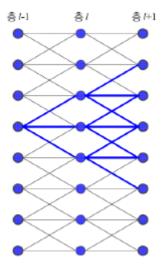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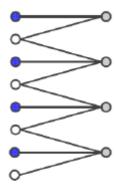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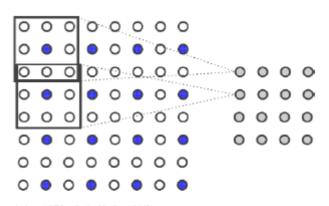


그림 4-12 CNN의 병렬 분산 구조

- 큰 보폭에 의한 다운샘플링
  - ㅇ 지금까지는 모든 화소에 커널 적용 -> 보폭을 1로 설정한 셈
  - 일반적으로 보폭이 k이면, k개 마다 하나씩 샘플링하여 커널 적용
    - 2차원 영상의 경우 특징 맵이  $1/k^2$ 로 작아짐



(a) 1차원 데이터(예: 음성)



(b) 2차원 데이터(예: 영상)

그림 4-13 보폭이 2인 컨볼루션 연산

- **텐서**에 적용
  - ㅇ 3차원 이상의 구조에도 적용 가능
    - ex) RGB 컬러 영상은 3mn의 3차원 텐서

3\*3\*3 입력 영상 커널 1 1 1 0 0 0 0 2 1 3 R 0 1 0 0 0 1 0 특징 맵 1 0 3 0 0 0 0 0 0 2 2 0 0 0 2 0 2 2 2 0 0 0 0 1 0 1 0 2 0 0 0 0 0 0 0 1 0 0 0 0 3 2 0 0 1 0 Ō 1 0 0 1 0 0 0 3 0 1 0 0 0 2 0 B 1 0 1 0 0 0 0 0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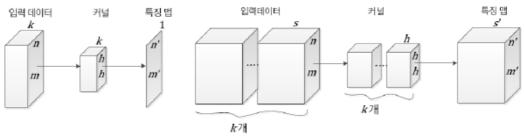
그림 4-14 텐서의 컨볼루션 연산(0 덧대기 적용)

ㅇ 특징 맵의 회색 노드의 계산 예시

1 0 0

$$\underbrace{\begin{pmatrix} 0 & 0 & 0 \\ 0 & 1 & 1 \\ 0 & 2 & 1 \end{pmatrix}}_{R} \underbrace{\begin{pmatrix} 0 & 0 & 0 \\ 0 & 2 & 2 \\ 0 & 1 & 0 \end{pmatrix}}_{G} \underbrace{\begin{pmatrix} 0 & 0 & 0 \\ 0 & 0 & 3 \\ 0 & 1 & 0 \end{pmatrix}}_{B} \underbrace{\otimes \begin{pmatrix} 0 & 0 & 0 \\ 0 & 0 & 1 \\ 0 & 1 & 0 \end{pmatrix}}_{C_{1}} \underbrace{\begin{pmatrix} 0 & 2 & 0 \\ 0 & 2 & 0 \\ 0 & 2 & 0 \end{pmatrix}}_{C_{2}} \underbrace{\begin{pmatrix} 1 & 0 & 0 \\ 0 & 2 & 0 \\ 0 & 0 & 1 \end{pmatrix}}_{C_{3}} = 9$$

- 3차원 구조의 데이터에 적용
  - o 채널이 k개인 3차원 격자 구조



- (a) 다중채널 데이터(예: RGB 컬러 영상)
- (b) 3차원 데이터(예: 동영상, MRI 뇌 영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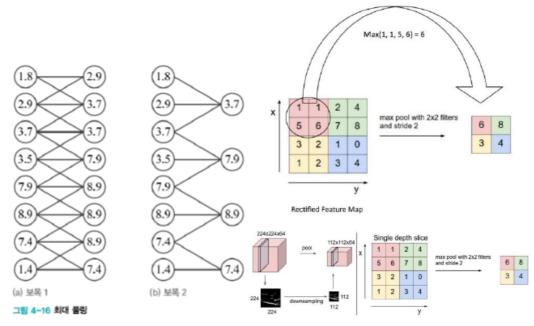
#### 그림 4-15 텐서의 컨볼루션 연산(직육면체로 표현하기)

- [그림 4-14]를 블록 형태로 다시 그린 것
- ㅇ 4차원 텐서로 표현하는 데이터
  - 컬러 동영상(3\*s\*m\*n), MRI 뇌영상(1\*s\*m\*n)
  - $\blacksquare$  k\*h\*h\*h = h커널을 s\*m\*n 공간을 이동하면서 적용

## 풀링층(POOL)

- 풀링 연산
  - o 최대 풀링, 평균 풀링, 가중치 평균 풀링 등

ㅇ 보폭을 크게 하면 다운샘플링 효과



- 풀링 연산의 특성
  - o 풀링은 상세 내용에서 **요약** 혹은 평균 등의 통계적 **대표성**을 추출
  - ㅇ 매개변수가 없음
  - 특징 맵의 수를 그대로 유지함(크기 X)
  - ㅇ 작은 변화에 둔감 -> 물체 인식이나 영상 검색 등에 효과적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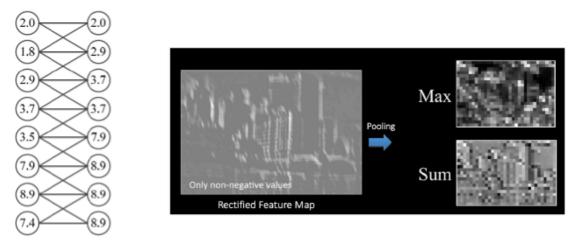


그림 4-17 작은 이동에 둔감한 최대 풀링

### 전체 구조

- 빌딩 블록
  - CNN은 빌딩 블록을 이어 붙여 **깊은 구조로 확장**
  - [그림 4-18]은 전형적인 빌딩블록 : 컨볼루션층 -> 활성함수 (주로 ReLU 사용) -> 풀링층
  - ㅇ 다중 커널을 사용하여 다중 특징 맵을 추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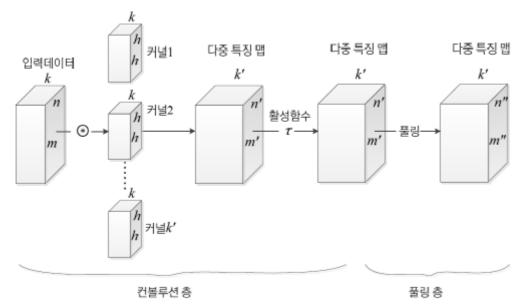


그림 4-18 CNN의 빌딩블록

- 출력의 크기와 매개변수의 수
  - o 입력:W1\*H1\*D1
  - o K개 F\*F커널, 보폭 S, 덧대기 P
  - ㅇ 출력의 크기

$$W2 * H2 * D2$$

$$W2 = (W1 - F + 2P)/S + 1$$

$$H2 = (H1 - F + 2P)/S + 1$$

$$D2 = K$$

- o 매개변수의 수
  - 커널마다 (F\*F\*D1)개의 가중치와 1개의 바이어스를 가짐
  - 따라서, 전체 매개변수의 수는 (F \* F \* D1)K + K
- 일반적으로 F = 2, S = 2 혹은 F = 3, S = 2를 사용
- 초창기 CNN 사례 Lenet-5
  - 특징 추출 : CONV POOL CONV POOL CONV의 다섯 층을 통해 28\*28 명암 영상을 120차원의 특징벡터로 변환
  - 분류 : 은닉층이 하나인 MLP
  - CNN의 첫 번째 성공 사례 : 필기 숫자 인식기 만들어 수표 인식 자동화 시스템 구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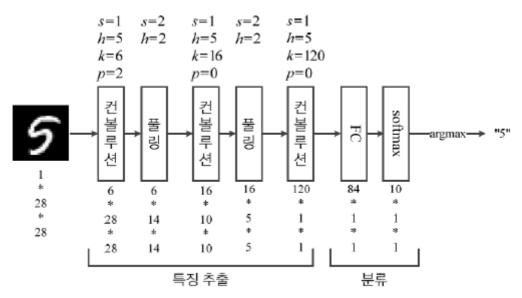


그림 4-19 LeNet-5 구조

- 가변 크기의 데이터 다루기
  - o DML는 특징 벡터의 크기가 달라지면 연산 불가능
  - o CNN은 가변 크기를 다룰 수 있는 강점
    - 컨볼루션층에서 보폭을 조정한다거나, 풀링층에서 커널이나 보폭을 조정하여 특징 맵 크기를 조절